평생교육의 이치(理致): 인간의 배움력과 가르침

인간의 배움은 인간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을 다루고 발전시키는 탐구행위로, 사회적으로 표출될 때 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드러낸다. 인간적 지식은 명료화할 수 없는 암묵적인 상태의 지식조차도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지식으로 간주된다. 더욱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인간의 구체적 인식아래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하기 때문에 **다분히 사회적이며, 교육적이다**. 그래서 인간적 지식은 인간의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적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도덕, 예술, 종교, 각종 특수한 기술 등 모든 분야의 능력과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적 지식은 그 특성상 개인적으로는 평생 학습적이며,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성향을 갖는다. 인간적 지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그 자체가 언어와 말의 경계를 무한하게 넘나들기 때문에 상황 부가적인 동시에 상대적이며, 사회현상을 인지하는 방식이나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기에 인간의 배움 행위 역시 상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적 지식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엇, 말의 뜻을 넘나드는 그 무엇으로 복잡하게 구성되며, 특정 연령대의 학습자만이 유일하게 독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적 지식의 또 다른 특성은 개인의 자아(自我) 중심적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보거나 느낌으로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의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인식의 중심에 서야만 사물이 제대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신체는 인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인간은 평생 배우는 동물이다. 그냥 배우기만을 좋아하는 한가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자기와 사회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더욱이 인간은 ‘참 자아(自我)를 완성하고 타자(他者)의 성취를 이루게 한다.’라는 목표의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배우는 사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뤄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인’인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결속과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가능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며, 경제적으로는 끊임없이 일과 자신을 조화시킴으로써 ‘평생고용’을 실천해 가는 생산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주도의 학습인을 가리켜 가능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은, 배움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자(孔子)가 말한 바대로, 논어(論語)에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공자의 학문을 숭상(崇尚)하고 유학(儒學)을 새롭게 정립하여 성리학으로 발전시킨 주자(朱子)의 공부론(工夫論)과 맥락을 같이한다. 주자에게 공부, 즉 앞에서 말한 배움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이 근본인데, 이 위기지학은 위인지학(爲人之學)과 질적으로 대비된다. 위인지학(爲人之學)은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 명예나 권력주변에서 쫓겨나고 또 이름나기를 좋아(好名)하는 등의 부차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공부인데 반해,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철저하게 자신의 본성 혹은 본질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결국 인간은 배움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배우는 동물로서, 학습인간은 자기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배움의 본능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일까지 완성해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자기 스스로 배우고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학습인간의 삶속에 하나로 통합될 때, 비로소 배우는 동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해 진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운 추수를 위해 일과 삶을 일구어나가는 지혜로 매일같이 땅을 경작하는 것과 흡사하다. **지혜의 밭고랑을 일구어나가며**, 매일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 추수로 지역공동체의 풍요와 번영을 실현해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함께 인간에게 가르치는 일은 배우는 일과 궤(軌)를 같이 한다. 물론 가르침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배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은 당연하다. 배움은 인간의 지적(知的)인 발달단계 과정상 정규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일정 기간을 거친다. 그러한 과정동안 배움의 효과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가르침과 배움의 왕복성, 그리고 상호호환성과 소통성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아무리 가르침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가르치기 전에 배우기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이다. 배움이 가르침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논어에서 또 발견이 된다. 즉, ‘**학불염이교불권(學不厭而教不倦)**’이라는 것이다. 그 뜻을 보면, 배움은 요란스레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조용한 속에서 진전이 된다. 묵묵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되풀이해서 천착(穿鑿)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뜻을 좀 더 말해보면, “**배움에 싫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남을 가르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배움의 연속성과 가르침의 중요한 철학과 의미를 개괄적으로, 평생교육의 그 깊은 이치(理致)를 이해하게 된다.

2018년 9월

- 글: 본 연구원 이사장 겸 국제평생교육원장
정치학박사 이종석 識